

사카노우에노쿠모 뮤지엄

SAKA NO UE NO KUMO MUSEUM

인사말

사카노우에노쿠모 뮤지엄은 2007년 4월『언덕 위의 구름』도시 조성의 핵심 시설로 탄생했습니다. 마쓰야마시는 도시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필드 뮤지엄 구상을 바탕으로 회유성을 높이고 스토리가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언덕 위의 구름(사카노우에노쿠모)』에서는 근대 국가 형성기의 세계와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 그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 등 다양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당 뮤지엄에서는 이를 테마로 한 전시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방문하신 분들이 역사를 배우고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사카노우에노쿠모 뮤지엄

坂の上の雲ミュージアム
SAKA NO UE NO KUMO MUSEUM

소설『언덕 위의 구름』

시바 료타로 씨가 40대의 대부분을 바쳐 완성한 작품. 마쓰야마 출신의 마사오카 시키, 아키야마 요시후루와 사네유키 형제를 중심으로 많은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근대 국가를 지향하는 메이지 시대의 일본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초의 국민 의식 속에서 일정한 자격만 갖춘다면 박사도, 관리도, 군인도 될 수 있었던 시대에 시키는 신문기자가 되어 근대 하이쿠, 단가, 문장의 혁신에 힘을 쏟습니다. 한편 요시후루는 육군에서 초창기의 기병을 양성하고, 사네유키는 해군에서 근대 전술의 기초를 확립하며 러일전쟁이 발발하는 격동기를 함께 헤쳐 나갑니다. 시바 씨는 이 장편 소설에 대해 ‘막연한 주제는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처한 조건 속에서 생각해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산케이신문 석간 연재 (1968년 4월 22일~1972년 8월 4일) 문예춘추 간행



시바 료타로

1923년 ~ 1996년. 오사카시 출생. 오사카 외국어학교(현 오사카대학 외국어학부) 동문어과 졸업. 1948년 산케이 신문사 입사. 1960년 『올빼미의 성』으로 제42회 나오키상 수상.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료마가 간다』, 『나라 출신 이야기』, 『구카이와 풍경』, 『유채꽃의 앞바다』, 『타타르 절풍록』 등 다수. 그 외 『가도를 가다』, 『풍진초』, 『이 나라의 모습』 등 기행, 에세이도 많다. 1993년 문화훈장 수훈. 그의 기일인 2월 12일은 ‘유채꽃 기일’로 불린다.



마사오카 시키

[1867-1902]



다다미 3장 시키의 시키의 서재

시키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메이지 12년경 중추관 공부방. 시키는 이 방을 ‘서재’라고 부르며 한시와 신문 만들기에 몰두했다. 『언덕 위의 구름』에서는 시키가 사네유키를 접으로 초대해 자신의 서재를 자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스에히로초에 있는 쇼슈지 절 경내에 시키도로 복원.



사네유키도 놀았던 마쓰야마성

에도 시대, 가토 요시아키가 지은 연립식 평산성. 이 사진은 마사오카 시키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뒷면에는 시키의 자필 하이쿠가 적혀 있다. 시키는 마쓰야마성에 관한 수많은 하이쿠를 남겼다.



요시후루도 다녔던 메이쿄칸

1828년(분세이 11년), 마쓰다이라 11대 번주인 마쓰다이라 사다미치가 번사들의 문무 연습장으로 니반초에 세운 번고 강당. 폐번치현 후, 마쓰야마 중학교(현 마쓰야마 히가시 고등학교)의 강당,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언덕 위의 구름』에서는 8살 때 이 메이쿄칸에 입학하는 요시후루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사카노우에노쿠모 뮤지엄 설계에 대해

이번 ‘사카노우에노쿠모 뮤지엄’을 기획하면서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마사오카 시키, 아키야마 요시후루, 사네유키 형제 등 시바 료타로 씨가 사랑했던 자유롭고 ‘공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메이지 시대 일본인들의 힘찬 시대정신입니다. 건물은 시로야마 공원과 시가지의 경계 부분에 있어, 관람객은 삼각형을 그리는 경사로로 연결된 전시실을 회유식 정원을 즐기며 올라가게 됩니다. 역사를 함께 따라가면서 메이지의 정신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신경썼습니다. 이 시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시바 료타로 씨의 뜻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공공’을 위한 문화시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도 다다오

1941년 오사카 출생.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여 1969년 안도 다다오 건축연구소 설립. 1979년 ‘스미요시 연립주택’으로 일본건축학회상 수상. 대표작으로는 ‘빛의 교회’, ‘시바 료타로 기념관(히가시오사카)’, ‘지주 미술관(나오시마)’, ‘나카노시마 어린이 책 숲 도서관(오사카)’, ‘부르스 드 코메르스(파리)’ 등이 있다. 1991년 뉴욕 현대미술관, 1993년 및 2018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개인전 개최. 예일 대학,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1997년 도쿄대학 교수, 2003년부터 명예교수 역임. 1993년 일본예술원상, 1995년 프리츠커 건축상, 2005년 국제건축가연맹(UIA) 골드메달 등 다수 수상. 2010년 문화훈장. 2015년 이탈리아의 별 훈장 대장군장(Grande Ufficiale) 훈장. 202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 코망뎀르 훈장 수훈. 저서로는 『건축을 말하다』, 『연전연패』, 『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 『안도 다다오 일을 말한다: 나의 이력서』 등이 있다.



아키야마 사네유키

[1868-1918]



아키야마 요시후루

[1859-1930]

마쓰야마시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

시키와 아키야마 형제가 태어나 자란 마쓰야마에는 그들의 발자취 등 많은 연고지와 시설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마쓰야마시는 『언덕 위의 구름』을 기적으로 마쓰야마시 전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필드 뮤지엄)’으로 만들어 세 사람의 높은 뜻을 많은 시민과 공유하며, 시민과 공공기관이 하나가 되어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카노우에노쿠모 뮤지엄’은 그러한 <도시 조성>의 핵심이 되는 시설입니다.



시키 기념 박물관

1981년 개관. 마사오카 시키의 세계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마쓰야마나 문학에 대해 친숙해지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설한 문학 관련 박물관. 시민의 지적 레크리에이션, 학교 과외학습의 장, 연구자의 연구기관, 관광객의 비디오텀러로 사랑받고 있다.



도고온천 본관

1894년(메이지 27년) 4월, 온천의 근대화를 목표로 했던 당시 도고유노마치의 이장 이시나리와 유키야에 의해 세워졌다. 마쓰야마 중학교 영어 교사로 부임한 나쓰메 소세키도 자주 찾았다고 한다. 개축 100주년인 1994년에는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반스이소

마쓰야마 시로야마산 남쪽 기슭에 있는 프랑스식 건축물. 1922년(다이쇼 11년)에 구 마쓰야마 번주의 후손인 히사마쓰 사다코토가 별장으로 지었다. 에히메현에서 가장 오래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011년 11월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시설 개요]

설계자 안도 다다오 건축연구소
건축면적 936.80㎡
연면적 3,122.83㎡
구조 규모 철근 콘크리트(SRC) 구조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개관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오후 6시 입장 마감)

[휴관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
기타 임시 개관일 있음)
※매년 2~3월은 전시 교체로 인해 휴관 기간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관람료]

일반 400엔(320엔)
고령자 (65세 이상) 200엔(160엔)
고등학생 200엔(1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 안의 요금은 20인 이상 단체 할인 요금
※2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

■JR 마쓰야마역에서(소요 시간 10분)
시내 전철(도고온천행)→오카이도 하차→도보 2분
■도고온천에서(소요 시간 10분)
시내 전철 전선→오카이도 하차→도보 2분
■마쓰야마 공항에서(소요 시간 30분)
리무진 버스(도고온천행)→오카이도 하차→도보 2분
■마쓰야마 관광항에서(소요 시간 30분)
리무진 버스(도고온천행)→오카이도 하차→도보 2분
■마쓰야마 자동차도에서 마쓰야마 인터체인지에서(소요 시간 20분)

[주차장 관련]

일반 방문객용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 교통기관 또는 주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주차 공간(5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연락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사카노우에노쿠모 뮤지엄
SAKA NO UE NO KUMO MUSEUM

[문의처]

(우) 790-0001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이치반초 3-20
TEL. 089-915-2600 FAX. 089-915-3600
URL : https://www.sakanouenokumomuseum.jp/
지정관리자/컨소시엄 이미지 마쓰야마

완만한 언덕길이 안내하는 『언덕 위의 구름』의 세계

공중 계단

가장 하중이 많이 걸리는 중간 부분의 기둥을 생략한 보기 드문 구조의 계단. 2층에서 4층의 전시실 3까지는 계단 옆의 경사로로 올라가고, 4층에서 2층으로 내려올 때는 공중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쓰야마의 풍경

메이지 시대에 촬영한 마쓰야마의 사진을 시키의 하이쿠와 함께 전시



전시실 2

『언덕 위의 구름』 3명의 주인공



아키야마 사네키가 그린
『폭포를 오르는 잉어(鯉の滝のぼり)』



아키야마 요시후루가 쓴
『질실강건 진취불지(質実剛健進取不止)』
※전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볼 전시
『언덕 위의 구름』 후기



전시실 3

소설 『언덕 위의 구름』을 축으로 매년 새로운 테마의 기획전을 개최

4F

소설 『언덕 위의 구름』에 나오는 3명의 주인공의 에피소드와 관련 자료를 전시. 또한 매년 테마를 변경한 기획전을 개최.

뮤지엄 설비 안내

○화장실

- 2층 인포메이션 옆과 3층에 설치
- 장애인용 화장실 있음(오스트메이트 대응)
- 기저귀 교환대 1대(2층 화장실 내) 설치

○코인 로커(반환식 100엔)

○음료수 자동판매기

- 코인 로커실에 설치

○기타 설비기기

- 휠체어 9대(보조용 전기 휠체어 2대 포함)
- 유모차 3대
- 보행기 5대
- 노안경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인포메이션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 갤러리 봄과 옛날

시바 료타로가 『언덕 위의 구름』에서 소개한 마쓰야마의 풍토를 이야기하는 자료를 전시



전시실 1 『언덕 위의 구름』과 그 시대

일본이 근대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메이지 시대를 연표와 자료, 영상 등을 통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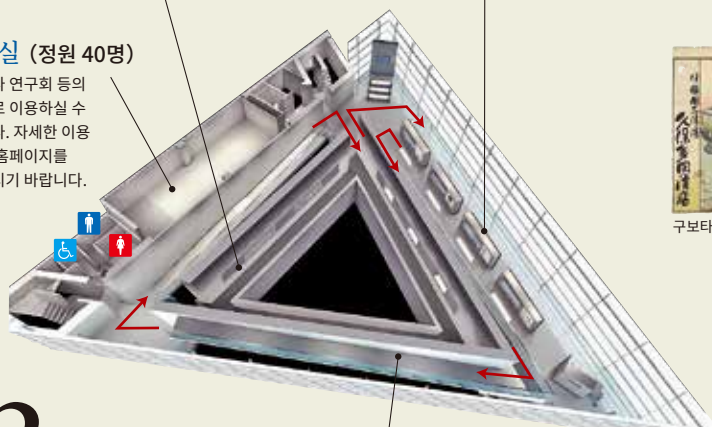
마쓰야마의 러시아군 포로



도고온천 가미노유
(메이지 27(1894)년 경)

회의실 (정원 40명)

강연회나 연구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보타 회조점 (당김표)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 포로가 선물한 숟가락과 포크

3F

소설의 배경이 되는 메이지 시대를 연표로 소개. 또한,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시작한 메이지 일본의 특징을 자료와 영상 등을 바탕으로 해설.



도고온천의 신로가쿠(振鷺閣)에 사용되었던 유리 공예품

쓰루시마섬 등대 모형



쓰루시마섬 등대에서 본 경치



쓰루시마섬 등대 관사 내부

3층에서 4층으로 이동하는 슬로프

『언덕 위의 구름』 신문 연재 벽면

1,296회(1968년 4월 22일~1972년 8월 4일)에 걸쳐 산케이 신문에 연재된 『언덕 위의 구름』을 전시



홀

콘서트, 낭독회 등 정례 무료 행사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라운지

소설 『언덕 위의 구름』 및 메이지 시대에 관한 서적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도 다다오 건축의 궤적』

뮤지엄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 씨의 건축의 궤적을 사진과 영상, 설계도면 등을 통해 소개합니다.



디지털 박물관

뮤지엄에서 전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터치패널 방식으로 간단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2F

■입장 무료 공간

『언덕 위의 구름』의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설 및 메이지 시대 관련 서적을 소개합니다. 또한 뮤지엄에서 수집한 자료 정보를 PC 단말을 통해 소개합니다.



MUSEUM CAFÉ 뮤지엄 카페

영업시간 10:00~17:00 카페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인 순수 프랑스식 서양관 '반스이소'와 사계절의 초목으로 물든 경치가 창밖으로 가득 펼쳐지는 카페입니다. 오리지널 블렌드 커피 및 홍차 등 각종 메뉴와 함께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음성 가이드

- 이용 요금 1대 100엔
- 수신기를 귀에 대는 방식으로, 안내 전시 및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대만어 대응